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3주일

제35권 21호(나해) 2015년 4월 19일

[묵상]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아직도 불안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
참으로 복잡 했을 것이다.

비겁하게도 달아났던 것에 대한 후회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움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제자들,

이들에게 하신 말씀,
원망의 말씀도,
질책의 말씀도,
꾸지람도 아니고,
그냥,
연민과 자비와 위로와 격려일 뿐이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들은 그랬다.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불안과 두려움을 당당하게 맞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당당하게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반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필연 마르첼로 & 임규에 분다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권분남 콜롬바, 이용식 베드로, 이필주 바오로, 변해경 올리안나,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안준환 미카엘, 정현모 올리안나, 성경순 루시아, 정희서, 박준구 요한, 윤호중 바오로, 양영순
	(생)서성용 베드로, 정린다 켄마 & 정엘리스 클라라, 장영진 안토니오, 엄세종 그레고리오, 이행자 리드비나 & 이근모 마리오, 세월호 희생자와 그부모님들, 정우성 루카, 정그레이스 & 김도마스, 정젤리 & 허구쥬 트레이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3,13-15.17-19

화답송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 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

제 2독서 요한1서 (John) 2,1-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루카(Luke) 24,35-48

영성제송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사슴	162	170
봉헌	264	261	270
성체	291	295	296
파견	431	235	162

성령과 예언

올바른 성령 이해

제4장

은사의 식별

2. 은사 식별의 기준

5) 교도권에 대한 순종

교회 교도권과 그 권위에 대한 순종도 참된 영을 식별하는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만민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고(마태 28,18-19 참조), 이 교도(敎導) 직무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전수되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진리의 영인 성령(요한 16,13참조)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신앙을 수호하며 오류를 경계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계시를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며, 그 신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자기 양 떼를 위협하는 오류를 경계하여 막는다(2티모 4,1-4 참조).” 이렇게 교도권은 하느님의 백성이,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머물도록 보살피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사될 수 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은사의 진실성과 올바른 실천에 관한 판단은 교회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속한다.”고 천명하면서, 목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드는” 사명이 맡겨져 있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은사 식별에 관해서는 교도권의 판단에 순종해야 한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의 교도권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요한 13,20)라고 말씀하셨다. 교부들도 교회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르쳤다. 대표적으로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성인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따르듯이 주교를 따르고, 사도들을 따르듯이 원로단을 따르며, 하느님의 계명을 섬기듯이 봉사자들을 섬기시오.” 누구보다도 영적 식별을 강조한 로울라의 이나시오 성인도 교회 교도권에 대한 순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배필이며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계 교회에 기꺼이 즉시 순명할 마음을 지녀야 한다.” 또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목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내세우면서 교도권의 판단을 무시하거나 그에 저항한다면, 그 은사 현상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계속>

알렐루야! 왕방강 잘고라줍서

1. “무지한 탓으로”(사도 3,17)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구토(嘔吐/Nausea)」라는 책을 통하여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느끼게 되는 무의미성(無意味性)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 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노력한 만큼 그들의 삶이 풍요롭지 못 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밑바닥에는 자신들의 ‘무지(無知)’가 자리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간은 이 세상을 자기 손안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2.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1요한 2,4)

얼마 전 고백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난 청 3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입술 을 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린 그 신자분과 저는 칸막이 때문에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자분은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그 자리에서 분명히 체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참 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 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다음과 같 은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만일 우리들 마음 이 닫혀있고 돌처럼 단단하다면, 우리들은 그 돌들을 손에 쥐고 던지려 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 예! 예!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한 길로 가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주 ‘하느님의길’에 대하여 진저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3.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루카 24,48)

제주도 절물 자연휴양림 입구에 있는 “왕방강 잘고라줍서.”라는 환영 문구는 “와서 보고 가서 잘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이 실재(實在)임을 “나를 만져 보아라.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준비하신 우연(偶然)이 아닌 필연(必然)적 사건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하시면서, 우리들도 당신 제자들처럼 부활 신앙의 증인이 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4. 교형 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주일에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는 칙서를 공포하셨습니다. 이번 희년의 주제는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에페2,4)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의 삶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느님께서 주실 꿀(하느님의 은유하심과 선하심의 상징)을 담기 위하여” 그분의 자비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풍성한 자비 안에서 충만해지시길 빕니다. 아멘.

◆ 정연정 신부 / 절두산순교성지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레 테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자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2015-2016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하여,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 학년 ,
대학 과정1-3학년 재학생
- 자격 : 본당 등록 신자 또는 등록 신자의 자녀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선발 방법 : 1차 신청서류 심사, 2차 면접
- 신청 기간 : 4/27/2015 - 5/31/2015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장학금의 수여 금액은 수혜 학생 1명당 \$ 2,000
이며, 수여 예정일은 8/9/2015 (주일)입니다.
- 문의는 본당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신부님께서 휴가차 모국 방문 중입니다.

- 일시 : 4월13일(월)~30일(목)
- 신부님께 영육간의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월, 화, 금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 수요일, 목요일,주일 미사는 정상대로 있습니다.
- 사무실은 21일(화요일) 휴무입니다.

◆ 4월 25일(토요일) 특전 미사가 임시로 7시15분에 봉헌됩니다.

◆ 교리반 예비자 모집

2015년 예비자 봉헌을 위해 모든 신자 분께 기도와 인도
부탁 드립니다.

- 모집 및 전교 기간 : 3월8일 ~ 4월 30일
- 환영식 : 2015. 5월 3일 미사 후 강당
- 교리반 : 5월7일~12월10일, 매주 목요일 8:10 ~ 9:10PM
- 세례식 : 2015. 12.13 예정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요셉회 4월 모임

- 일시 : 오늘주일(19일) 11시미사후
- 장소 : 강당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 (310)780-2789

◆ 남가주 ME 제 75차 주말

- 일시 : 2015년 5월 1일(금) 7PM~3일(주일)5PM
- 장소 : 아씨시 피정의 집
1519Woodworth ST. San Fernando,91340
- 참가신청 : 양요한& 양젼마부부 ☎(714)955-2917

◆ 2015년 첫 울뜨레아 모임

울뜨레아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오니 함께 하시어
뜻깊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시간 : 4월19일 11시 미사후
- 장소 : 사무실 옆의 작은 강당
- 나눔의 시간 주제: "공동체 속에 크리스천 실천에 관한 경험"
- 연락: 남 해나 분다 ☎ (310)384-3289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19일(주일) * 토동1반 : 카레(\$3)
* 주일학교 : 햄 & 치즈 샌드위치 (8학년)
- 4월26일(주일) * 토서1,3반 : 샌드위치 (\$3)
* 주일학교 : 김밥 (7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김찬구 권태만 금영도 김대우 김병조 김병태 김성택 김원모 김종훈 김주량 김효진 남명자 노혜숙 박광자 박정자 반비오 성미선 안종연 안태갑 오상준 원건희 윤석구 이근모 이근태 이미예 이민상 이병우 이우성 이은경 이은록 이일길 이재용 이재정 정동호 정병훈 정인옥 정지숙 정훈모 주대중 지재환 최기호 최열자 최희태 한창주 한혁수 홍인표 황지영 한길선례 박세실리아 합계:\$5,905	김찬구 권태만 금영도 김대우 김병조 김원모 김주량 김효진 남명자 노혜숙 박광자 반비오 성미선 안종연 안태갑 원건희 이근모 이미예 이민상 이병우 이우성 이은록 이일길 이재정 정동호 정지숙 정훈모 주대중 지재환 최기호 최열자 한창주 한혁수 황지영 한길선례 박세실리아 감사헌금 : \$100(알렉스한) 합계 : \$3,565
주일미사 헌금 : \$2,814 주일학교 수표교환 : \$4,440	주보광고:\$250 회생예금: \$ 200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반 수업중

- 과정 :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 장소 : 백삼위 한국 학교 2층
 - 기간 : 4월10일 부터 매주 금요일 (7:00~8:30pm)
- ☎(213)700-9399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남가주 소식

◆ 2015 제 4회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쉽표"신청서

- 날짜: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 5월 24일 일요일
- 대상: 모든 한인 미혼 가톨릭 청년
- 장소: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접수: \$100 (Due 5월 10일) \$120 (after 5월 10일)
- 주관: 남가주 가톨릭 청년 연합회 UYKC
- 준비물: 목주,세면도구, 수건, 침낭, 여벌옷 (두꺼운 옷),
성경, Open Mind

◆ 2015 FIAT 장학금 프로그램

FIAT SCHOLASHIP PROGRAM2015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a@fiat.org (714)702-9830

◆ 2015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FIAT SERVICE RECOGNITION PROGRAM2015

- 신청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2th)
- GPA3.0이상
- 본당 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5월 31일자 소인 찍인 분
- 신청문의-fiata@fiat.org (714)702-9830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드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지경수 마태오 991-4838 4/12(일) 오후1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유선식 필립보 213-718-9262 4/11(토) 오후 6시 30분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4/17(금) 오후7시30분 성당 1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490-9662 4/19(일)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재호 펠릭스 848-0590 4/11 (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우영희 엘리사벳 691-6087 4/17(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영수 다미아노 625-3312 4/25(토) 오후6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대레사 634-6923 4/10(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김 루시아 213-458-3356 4/1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257-8416 4/13(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텐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4/11(토) 오후 7시 강당
	3	1,2반과 같음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377-4219 4/10(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정판영 레오 793-6157 4/17(금) 오후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허정자 릿다 890-1778 4/19(일) 오후 4시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이선민 마리아 617-3568 4/14(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	오후1시
-----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오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124위 시복 특집< 24 > 박사의 안드레아 (1792~1839)

...우리가 죽을 시간이 임박했으니 무엇보다 죽음을 잘 준비합시다...

‘사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박사의 안드레아는, 1827년 순교한 복자 박경화 바오로의 아들로 충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사의가 태어날 때 이미 박경화가 천주교에 입교해 있었으므로 박사의는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의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주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는데,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박사의와 그의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고향의 재산을 버리고 끊임없이 옮겨 다녔기에 몹시 가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낮에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저녁에 규칙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를 바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1827년 정해박해 때, 박사의는 가족과 함께 경상도 상주 고을 명에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그의 가족은 교우들과 함께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몇 차례 심문을 받은 박사의는 아버지와 함께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었는데 당시 조선의 국법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심문받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박사의는 아버지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의는 늙은 아버지결을 잠시라도 떠날 수 없어 재판관에게 제 속내를 고했고, 그의 효심에 감복한 재판관은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박사의는 항상 아버지와 동시에 문초를 받았는데, 몸을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형벌을 받은 후에도 즉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이토록 눈물겨운 효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박사의는 계속되는 형벌과 옥중에서의 고통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그해 11월, 박경화가 70세의 고령으로 옥사하자, 감옥에서 짚신을 만들어 끼니를 이어가던 박사의는 하루 한 사발의 술 혹은 삶은 콩 한 주먹만 먹으며 지냈습니다. 급기야 박사의의 건강을 염려한 교우들이 밥을 먹도록 강권하자 박사의는 그들의 애원에 못 이겨 그렇게 했으나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옥 안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옥살이가 열두 해를 헤아리던 1839년, 조정은 다시 박해를 가하며 지난날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라 명했습니다. 형장으로 향하던 박사의는 이런 말로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해 동안의 고난의 결실을 맺을 터이니 슬퍼하지 맙시다. 천주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천주를 찬양합시다.” 박사의는 1839년 5월 26일, 대구에서 참수되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알코올에 빠졌다가 회복 중인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 삶도 다시 부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에 찌든 이 육신을 다시 갖고 싶지 않고, 그때의 기억도 모두 지우고 싶습니다.

☞ 어린 시절에 제가 상상했던 부활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부족함이 완전히 채워져서 완벽해지고,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이 사라져 더는 부끄럽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완전한 삶이 부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이셨다는 대목에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모든 상처가 사라져 완벽해지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의 흔적인 그 상처로 부활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부활은 그 모든 것이 사라져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내가 가진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보게 합니다. 내 죄가 하느님과 이웃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게 합니다. 상처의 의미가 바뀌어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죄의 의미가 바뀌어 용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전에 형제님이 술로 인해 지은 죄가 부끄럽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 괴로우시겠지만, 이제는 그 상처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형제님의 상처를 통해 지금도 술로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이에게 다가가 함께하며 위로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역시 부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